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위해 기도드립시다.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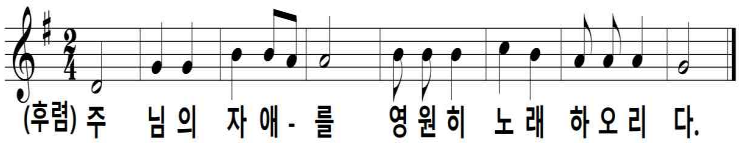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열왕기하 4,8-11.14-16ㄴ



화답송 ○ 주님의 자애를 영원히 노래하오리다. 제 입은 당신의 진실을 대대로 전하오리다. 제가 아뢰나이다. "주님은 자애를 영원히 세우시고, 진실을 하늘에 굳히셨나이다." ◎
○ 행복하여라, 축제의 기쁨을 아는 백성! 주님, 그들은 당신 얼굴 그 빛 속을 걷나이다. 그들은 날마다 당신 이름으로 기뻐하고, 당신 정의로 힘차게 일어서나이다. ◎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는 유일한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내세의 삶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제2독서 | 로마서 6,3-4.8-11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희는 선택된 겨레고 임금의 사제단이며 거룩한 민족이니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당신의 놀라운 빛 속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의 위업을 선포하여라.

복음 | 마태오 10,37-42

성가 | 입당성가 [55]
예물준비 [215]
영 성 체 [50]
파견성가 [2]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권혁천 파비아노	이민재, 권순재
김세영 야고보, 남정희 아녜스	이은경 헬렌

생미사	봉헌
김은성 피터	가족
정종철, 장해라, 최병은 생일축하	하늘처럼 성가대
이선희수산나, 이경희루시아 영육건강	이수산나
김지원 돔나, 김홍섭 루크	가족
김철영 미카엘	가족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이남석베드로 박재호베네딕트

더큰집
TEL. 212-564-8238

HANBIT TOUR, INC.
한빛여행사
Mary Lee
1270 Broadway #303 (32 St.- 33 St.) New York, NY 10001
Tel : 347-840-2112
Fax : 212-631-8070
hanbittour@gmail.com

백승민
이민법 변호사
IMMIGRATION ATTORNEY
TEL. (551) 335-8868
EMAIL. EMIN@BAIKLAW.COM

CHA
PHYSICAL THERAPY
차 물리치료 | 침치료
16 W 32nd St. #1007, New York, NY 10001
212-643-9326

마리아 투어
Maria Tour USA
성지순례
박 아그네스
TEL. 212-594-7773, 646-808-7322

Hair City Elegance
교우분 환영합니다.
45-38 Bell Blvd. Bayside, NY 11361
데레사 718-423-4940

Nest Seekers
INTERNATIONAL
부동산
크리샤 박 (917) 370-0394
krishap@nestseekers.com

이민전문 (아오스딩)
백이백 변호사
201-224-3400
718-445-0345
Paicklaw@gmail.com

120 W 58th St. Manhattan, NY 10019
120 WEST 58 WINE & LIQUOR
린다김 데레사
212-265-0333 (FREE DELIVERY)
MON-SAT:10AM-10PM / SUN:12PM-9PM

WONJO
New Wonjo
212-695-5815

▶맨하탄 한인성당 25주년 발자취 기념 책자 발간

*무료로 책자를 보시는 방법: 옆 코드를 스캔하신후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로딩에 시간이 걸리니 링크 누르시고 좀 기다리셔요.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신청:사무실

▶영명일 축하드리며 함께 기도드려요~

7.1 에스텔 7.3 토마스 7.5 대건 안드레아 7.6 마리아고레띠
7.8 라이문도 7.11 베네딕토 7.15 보나벤뚜라 7.20 엘리야
7.22 마리아 막달레나 7.23 비르지타 7.24 크리스티나 7.25 야고보
7.26 요아킴과 안나 7.29 라자로,마르타,마리아 7.31 이냐시오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연령회 야외행사에 초대합니다.

웅장하고 감동적인 '모세' 뮤지컬 관람~

출발: 7/12(수) 7am 31st. 브로드웨이 코너
장소: 펜실베니아 랭카스터 밀레니엄극장
*아침식사(샌드위치,두유)와 점심(식당) 제공됩니다.
준비:묵주. 문의: 연령회장 표카타리나 516-987-4111

▶제 40차 미동북부 울뜨레야 지구대회

일시: 7/4(일)9:30am~4pm 장소: 메이플우드 성당(St.Andrew Kim Church-280 Parker Ave, Maplewood,)
참가비:무료, 비울뜨레야신자도 환영

▶제27차 2023 미동북부 성령대회

주제: "예수님께서 성령안에서 즐거워하며 말씀하셨다."
일시: 7/22(토) 9am-7pm, 7/23(주일) 9pm-5pm
장소: 포트리 하이스쿨 오디토리움4 참가비: $35(양일간 점심과 간식제공) 문의: 성령기도회장 이안나 917-579-5072

▶맨하탄 성당 청년 여름캠프에 초대합니다.

날짜: 8/25-27(2박3일)
참가비: 7/30까지: $200,
8월은 인원마감되면 신청불가, 인원마감 전이면 $220
문의: 청년회장 양젬마 kakao ID: Jcy258

▶PRAISE NIGHT 청년 찬양의밤

7/15(토) 7pm 성미카엘 성당: 19E.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문의: 마이클성당 청년회장 kakao ID: junso5551

▶하늘처럼 성가대 반주자 모집

성가는 말마디에 아름다운 멜로디를 덧붙여 하느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성가대 반주자를 찾고 있사오니 피아노 전공하신 본인, 또는 주변의 지인중에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지휘자 646-696-4680

▶2024년 부활절 세례, 예비신자 교리반 모집

교리첫만남: 2023년 10/1(주일), 교육관 3A
세례일: 2024년 3/30(토) 부활성야
일시: 매주일 오전 11시
문의: 김효주 수녀 347.834.5784

〈성모의 밤 선교봉헌카드 내용 中 〉
"저는 제 주변에 **가톨릭에 입교를 권할 분**을 관심있게 보며 그분이 하느님의 은총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예수 성가정회(FYMMY)회장 및 회원모집

젊은 부부들이 주님안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맺고, 행복한 성가정을 이루도록 돕고 의지하는 모임입니다.
문의: 청년분과장 강토마스 310-413-1653 카톡: kangkenny

▶주일학교 교사모집 신청: 신부님

▶사무실 휴무 안내

기간 : 6/27(화)~7/6(목), 김효주 수녀가 북미주 수녀연합회 주최 연중피정에 참여합니다. 교우분들의 기도 부탁드리며 미사신청은 주일 재무 데스크에서만 가능, 각종 증명서 발급은 7월 6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성경공부(BIBLE Academy)일정

주일반	7/2(오늘) 성경공부 휴강입니다.	김효주 수녀

▶교우분들은 미사전 독서와 복음 읽기에 참여합시다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을 때,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미사경본 총지침).

미사전 독서와 복음을 미리 읽고 미사에 참례하면 말씀의 식탁에 풍성하게 차려진 말씀의 음식을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이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살과 피가 됩니다.

▶전례봉사자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 지향	성찬 봉사	복사
7/2	이영노 율리안나	민완준 필립보	이경자 율리안나	이경자 율리안나	김종선 비비안나	김승현마리아 이유채아멜리아
7/9	이지훈 아녜스	송명근 대건안드레아	장혜윤 크리스티나	장혜윤 크리스티나	민덕미 안젤라	김승현마리아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기에 앞서
주님께서 저에게 강복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프란치스코 교황 취임 첫인사 중에서

주일의 말씀

자모이신 성 교회의 지극히 공경하올 교황성하께!

초전본당 주임 | 문봉한 야고보 신부

먼저 프란치스코 형제를 교황님으로 모실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느님께 두 손 들어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Viva PaPa! Viva Paco!

지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부름을 받은 한 분만이 설 수 있는 그 엄중한 자리에서, 위대한 교황님이 나약하게 모든 이의 기도를 청하면서 거룩한 직무를 시작하셨지요. 너무나 겸손하고 솔직해서 당신이 서신 발코니가 마냥 높으신 분의 자리만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랑의 위엄이 흘러내리는 천상의 층계가 되었습니다. 당신께서는 죄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가진 자든 없는 자든 모두와 함께하시기를 기도로 청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이의 모든 것인 착하신 주님을 보여 주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서 희망을 받아 안으며 한 마음으로 새 교황님을 위해 기꺼이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 날 이후 온 인류가 마주한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친구인 당신은 우리의 기대를 저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저희보다 한 발 앞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몸소 보여 주셨습니다. 또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열쇠는 자본과 권력을 이용한 계략이 아니라, 자신을 순수하게 내어주는 사랑임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공격이 하느님의 사랑을 몰아낼 것처럼 이 땅에서 기승을 부리는 날, 비에 젖은 성베드로 대성당 계단에서 홀로 인류를 위해 기도하시던 당신에게서, 또 다시 희망을 보았습니다. 희망은 막연히 기대만 하는 자의 몫이 아니라 성실히 준비하는 자의 선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렇게 내리던 비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인류의 공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의 예표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늘 고통 속에서 함께하는 친구로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황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사랑은 구체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굶주린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자들을 찾으라고 하셨지요.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한 사랑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없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 주지 않는 이기적인 변명에 불과함을 깨우쳐 주셨지요. 이렇듯 사랑의 산증인이신 당신과 함께함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를 새삼 느낍니다. 오늘 교황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 한 번 새롭게 다짐해 봅니다. '변명과 핑계가 아니라 구체적이며 신속하게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우리의 친구이신 교황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겠습니다.

Viva PaPa! Viva Paco!